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 조선업, 누계수주 '08년 이후 최대

Clarksons에 따르면, 7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 401만CGT(100척) 중 한국이 181만CGT(24척)으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함. 2위인 중국은 1,348만CGT로 격차는 2.4%로 줄어들음. 한국 수주잔량도 5개월째 증가추세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미국 1조달러 인프라 예산 상원 통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10일 상원을 통과함.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5조달러 예산 결의안도 11일 통과됨. 두 예산안 모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까지 통과해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됨. (한겨레)

중국 굴착기 판매 석달 연속 감소... 경기 둔화 우려 가속

중국공정기계공업협회(CCMA)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내 26개 굴착기 제조업체의 총 판매량이 1만7,345대로 집계됨. 전년대비 -9.2% 감소한 수준임. 5월에는 전년대비 -14.3%, 6월 -6.2% 감소했음. (한국경제)

US pushes for more oil production after Opec+ compromise

미국이 Opec+에 증산을 촉구함. 세계 경제가 팬데믹 이후 회복하면서 석유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석유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지난 7월 Opec+회의 이후 Baltic Dirty Tanker Index는 590에서 608로 상승했음. (Tradewinds)

Origin and MOL explore shipping green ammonia from Australia from 2026

호주 Origin Energy는 일본 선사 Mitsui OSK Lines(MOL)과 2026년 그린 암모니아 수출을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 2021년 12월까지 실현가능한 공급망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Upstream)

New dawn for Norway's long-delayed restart project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Yme 필드 프로젝트가 2021년 2분기 재개될 예정임. 2007년 신규 개발계획(PDO)이 승인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았음. 6,300만 배럴이 매장되어있다고 보도됨. (Upstream)